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과 태도 간 관계 연구

-제주지역 관련업계 서비스 종사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main attributes of health tourism destination and attitudes: Focused on service providers in Jeju

김 효* · 최 용 복**
(Kim, Hyo · Choi, Yong-bok)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시사점

I. 서론

세계 경제의 고속 성장은 건강 지향적 생활 방식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웰빙(well-being)과 건강에 대한 초미의 관심과 함께 관광이 결합된 헬스 투어리즘(health tourism)이 확산되고 있다. 헬스 투어리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대 로마시대 Bath 지역을 찾아 여행하고 18세기 유럽 상류층들은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스파(spa)와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문성중, 2007). 헬스 투어리즘은 그렇게 건강 추구의 욕구 증진 및 건강유지의 예방적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것이며 현대에는 진료를 받거나 완료 후 관광활동(휴양·레저·문화활동)과 접목 될뿐만 아니라

* 제주대학교 GIS센터 수석 연구원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교수

의료서비스 수준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국가나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헬스 투어리즘은 웰리스 투어리즘과 메디컬 투어리즘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료서비스와 관광활동이 융합된 메디컬 투어리즘(medical tourism) 또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최대 관광 송출국으로 자리하고 있는 중국의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경제의 고속발전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생활수준이 향상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이미지(외모)관리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어 우리나라 성형위주의 메디컬 투어리즘에 최다 송출국으로서 국내 메디컬 투어리즘 산업을 견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박종덕·유경미, 2001). 현 박근혜정부에서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7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아시아 헬스 투어리즘 중심지로의 육성 및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고(장심, 2015; 장현숙·광주일보, 2014; 허문구·조현승·최윤기·박형진·정기택, 2013), 대도시 중심의 메디컬 투어리즘의 비약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세계적 트렌드로서 자연스럽게 고조되고 있는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폭됨에 따라 건강을 추구하는 관광에 대한 요구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1960년대에 40% 대의 도시화율은 2011년 약 90%로 증가하였고 지난 50여년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발전은 도시의 활력과 함께 선진국 진입으로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지만 도시거주생활과 업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들로 인한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및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고 주의 회복 및 정서적 안정감 회복이 필요함에 따라 웰리스 투어리즘 (wellness tourism)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014).

웰리스 투어리즘과 항 노화(anti-aging)와 같은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가는 치료중심에서 일반 건강인 대상들이 예방·관리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유지 증진에 비중을 둔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 헬스 투어리즘에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승민, 2015·유지운, 2011).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적극적인 지원 결과 국내 헬스 투어리즘 객 성장률은 '09년부터 '13년까지 250.8% 로 성장하였고,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현황을 보면 2011년 122,297명, 2012년 159,464명, 2013년 211,218명으로 2013년은 전년대비 32.5%로 증가하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제주도의 메디컬 투어리즘 현황도 2009년 223명에서 2011년 740명 2012년 1,752명 2013년 2,952명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2014). 그러나 타 광역 지자체별 방문객 수를 비교해 보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헬스 투어리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고 행정의 정책적 지원 및 기초연구들을 통한 추진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2015).

그러한 측면에서 2006년 제주하이테크 산업진흥원 제주전략산업기획단은 제주특별자치도 헬스 투어리즘 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웰빙 스파형·건강검진 센터형·요양 센터형 헬스 투어리즘 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제언하였다(임성준, 2006).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는 내국인 관광객들의 인지하고 있는 헬스 투어리즘에 대한 개념은 휴식(휴가)를 위한 관광과 스파·온천 등의 웰빙 관광으로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 먼저 건강검진과 미용, 스파 유기농 친환경등 치유중심의 상품 개발를 통해 전략적 홍보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한라대학, 2008). 2007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의 발전방향에서는 제주형 헬스 투어리즘 상품의 전략적 개발 연구에서는 한방, 유기농 천연 약재, 미용, 양방, 수 치료, 명상 등 헬스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제주국제자유도시 범무 서비스 인력양성 사업단, 2007). 2009년 제주형 헬스 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워크숍에서 제주형 헬스 투어리즘 상품개발에 대해 물을 이용한 상품과 스파 및 마사지를 이용한 상품개발, 한방을 활용한 상품 개발이 필요성을 제언하였다.(제주관광공사, 2009). 2010 제주의 융복합 산업을 통한 선도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에서는 제주 헬스 투어리즘 모델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결과 대표적 육성분야로 청정 환경을 이용한 스파 및 마사지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제주대학교 관광·레저 및 물산업 인재 양성 센터, 2010).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헬스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및 제주형 상품 개발 방안에 대한 다각적 모색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시된 여러 안들 중 대부분은 제주는 메디컬 중심의 상품개발보다는 웰리스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개발의 적합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제주 웰리스 투어리즘은 제주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컨셉과 더불어 제주도 핵심 산업으로 건강·뷰티·물·바이오·향장산업 등 오랜 시간 구축되어진 화장품, 물 산업 관련 양성된 인력, 건강식품 등을 기반으로 웰리스 투어리즘의 기초가 준비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축되고 있는 사업들의 확장성 증대 및 활성화 방안의 시초가 될 것이다. 즉,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을 전제로 하는 제주지역 환경과 특성을 전제로 하는 적합한 전략수립은 제주 웰리스 투어리즘의 성장을 동인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지역 헬스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을 거론하기에 앞서 먼저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헬스 투어리즘은 노동집약적 관광산업으로 다양한 분야(산업)의 관련 종사자들이 역할과 역량은 헬스 투어리즘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주 지역 헬스 투어리즘 관련 산업 인력 풀에 대한 다각적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의료·관광·스파 관련 종사자들을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과 헬스 투어리즘 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개인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및 연역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헬스 투어리즘관련 종사자들의 태도와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의 주요 속성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의 주요 속성

관광목적지는 선택속성의 관점에서 다차원적 요인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광목적지는 매력물, 인프라, 서비스, 접근성, 자연환경, 지역주민, 엔터테인먼트 등의 속성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Morgan, Prichard & Pride, 2011). 관광목적지를 상품으로 보는 경우 1차적, 2차적, 3차적 구성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1차적 구성요소는 매력물, 2차적 구성요소는 관광목적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3차적 구성요소는 관광목적지가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이다(Singh, Timothy & Dowling, 2003). 이처럼 관광목적지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 관광요인들로 구성되는 것이다.

헬스 투어리즘의 주요속성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시설 및 기기의 현대화, 의료진의 우수한 서비스, 유무형의 관광서비스, 관광시설, 종사자의 친절도, 관광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김봉기, 2014). 중국인의 한국헬스 투어리즘 상품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헬스 투어리즘의 선택속성을 의료신뢰성, 국가이미지, 헬스 투어리즘 환경, 의료시스템, 헬스 투어리즘 비용이라는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전인순·민동규·이경숙, 2012).

대구시 헬스 투어리즘 선택속성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헬스 투어리즘의 상품, 의료인프라, 관광인프라, 의료비용, 편의시설, 의료친절도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는 헬스 투어리즘의 선택속성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이은미·김원인·이계희, 2009). IPA를 이용한 헬스 투어리즘 선택속성 연구에서는 서비스품질, 접근성, 편의성, 의료상품의 차별성의 4개 요인을 이용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고선희·박은숙, 2012).

속성(attribute)은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이다. 관광지 속성은 관광을 계획하고 선택할 때 주요 결정인자가 되면서 소비자의 방문동기 및 구매를 측정하는 평가 도구와 관광객의 태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자연환경, 역사·문화적 볼거리, 이벤트·축제, 쇼핑시설, 친절한 서비스, 바가지 안 씌우

기, 교통편의, 편의시설, 숙박시설의 9개의 속성을 볼거리, 즐길 거리, 종사원 서비스, 관광편의라는 관광지속성을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증연구에 활용하였다(김동환, 2012; 최창희, 2011).

지금까지 관광목적지와 헬스 투어리즘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에 대한 공통적인 선택속성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의 선택속성을 헬스 투어리즘 상품, 서비스, 인프라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2.2 태도

태도는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특정대상에 대한 일관성 있는 소비자의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이다(황용철·김동훈, 2011). 이러한 태도는 사회심리학에서 구조적 접근법과 개념적 접근법을 통해 각각 정의하고 있다. 우선 구조적 접근법에서의 태도는 개인이 특정대상에 대한 지각적·감성적·인지적 측면에서 감지하고 반응할 정신적·심리적 상태이다. 다음으로 개념적 접근법에서의 태도는 특정대상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측면으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일관된 반응을 보이도록 학습된 경향이다(김중의, 2006, 박시사, 2005). 이처럼 태도는 일관성과 호의적·비호의적이라는 방향성,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특징이 있다(김성영·이진용·라선아, 2005).

지역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경제적 편익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어왔다. 최근에는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적 편익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식·태도·행동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조문수·오상운, 2015). 헬스 투어리즘에 대한 인식·태도·지식의 차이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보건계열학과와 관광계열학과 학생들 간의 태도에 대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안정민, 2014). 관광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관광태도를 인지적·감성적 태도로 분류하여 실증하였다(이경수, 2013).

관광의 산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주민의 태도는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편익, 경제적 문제, 긍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부정적 사회문화적 영향, 부정적 환경영향, 산림에 대한 편익, 산림관련 문제로 구성되는 것이다(Kuvan & Akan, 2005).

관광목적지 개발수준과 지역주민의 태도 간 비교연구에서 태도에 대하여 관광 개발에 대한 호의도, 관광객 수 증가에 대한 욕구수준으로 측정하였다(Vargras-Sanchez, Valle, Mendes & Silva, 2015). 뉴질랜드 10개 관광목적지의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태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경제적 영향과 고용에의 영향, 인프라에의 영향, 범죄와 공해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하였다(Lawson, Williams, Young & Cossens, 1998). 영국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태도를 관심, 경제적 편익, 고용에의 영향, 비용에의 영향 등으로 측정하였다(Godfrey, 1998).

영상촬영지 관광객의 선택속성과 태도 간 관계연구에서 태도를 개인적 태도, 경험적 태도, 감성적 태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임윤정·이혜린·윤장열, 2006). 이상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태도에 대한 하위요인을 도출하였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적 편익에 대한 태도와 나머지 태도는 모두 개인적 태도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웰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태도를 경제적 태도와 개인적 태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Ⅲ.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웰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과 웰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태도 간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각 변수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1의 연구모형과 가설을 각각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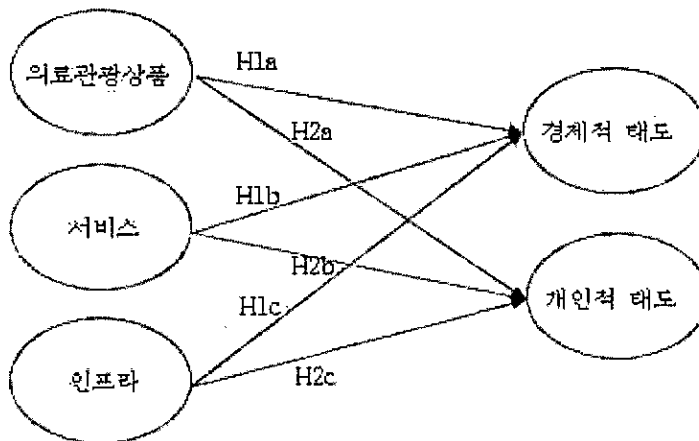


그림1. 연구모형

3.1.2 가설설정

가설H1: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은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경제적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H1a. 헬스 투어리즘 상품은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경제적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H1b. 관광목적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경제적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H1c.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의 인프라는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경제적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H1은 Godfrey(1998), Kuvan & Akan(2005), Vargas-Sanchez et al.(2015)의 연구를 기초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목적지를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로 보다 세분화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H2: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은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개인적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H1a. 헬스 투어리즘 상품은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개인적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H1b. 관광목적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개인적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H1c. 관광목적지의 인프라는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개인적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H2는 임윤정 등(2006)의 연구를 기초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관광목적지에 대한 주요 속성이 개인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의 선택속성이 개인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3.2 표본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지역의 의료, 스파, 관광 등 헬스 투어리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편의표본추출을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4주간 실시하였다. 조사는 조사방법은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기기입식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설문은 총250부를 배포하여 235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21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통계프로그램은 SPS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3 설문구성

본 연구는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과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각 변수의 하위요인들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의 각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을 구성하는 상품,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측정은 각각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상품에 대한 측정은 헬스 투어리즘 상품의 우수성, 헬스 투어리즘 상품의 다양성, 헬스 투어리즘 상품의 시장성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서비스는 헬스 투어리즘 관련 서비스로 헬스 투어리즘 (medicare)서비스의 기술수준, 비 의료(wellness)서비스의 기술수준, 헬스 투어리즘 서비스의 지원인력수준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프라는 헬스 투어리즘 서비스 시설의 전문화수준, 헬스 투어리즘 서비스 시설의 규모, 헬스 투어리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태도에 대한 측정은 경제적 태도와 개인적 태도에 대하여 측정하였고 각각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경제적 태도는 관광수요유발 가능성, 일자리 유발가능성, 관광산업활성화에의 기여가능성, 소득증대 가능성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 개인적 태도는 헬스 투어리즘 에 대한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관심유무, 헬스 투어리즘 의 성장가능성, 헬스 투어리즘 에 대한 호의성, 헬스 투어리즘 에 대한 가치평가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IV. 분석결과

4.1 조사 표본의 특성

최종 217부의 조사 표본을 분석한 결과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1>과 같이 나

타났다. 우선, 성별에 따라서는 남 41%, 여 58.5%로 남녀비율이 약 4대6정도로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연령별로는 20대 30.9%, 30대 37.8%, 40대 23.5%, 50대 이상이 7.8%로 3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세 번째로 직종별로는 의료분야가 45.2%, 스파(피부관리)분야가 22.6%, 관광 직종이 32.2%를 각각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10년 이상이 24.5%,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3.5%, 1년 미만이 16.1% 등으로 각각 나타나 근무기간이 긴 종사자 그룹일수록 높은 근무인원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나이는 30대, 직종별로는 의료분야, 근무 기간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그룹이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제주지역의 헬스 투어리즘 분야에 대한 전형적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2 타당성 및 신뢰도분석

4.2.1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 회전방법은 베리맥스 회전법을 각각 사용하였다. 요인추출은 추출할 요인 수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우선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KMO(Kaiser-Meter-Olkin)는 .809로 높게 나왔고, 카이 스퀘어 값은 1756.177로 나타났다. 유의수준은 .000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요인분석은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요인분석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요인별로 적재된 요인에 대하여 요인1은 헬스 투어리즘 상품 요인, 요인2는 서비스요인, 요인3은 인프라 요인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공통성은 헬스 투어리즘 상품이 .837에서 .940, 서비스가 .808에서 .869, 인프라가 .719에서 .915로 모두 .700이상의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각 요인별 적재량도 .600이상의 양호한 값을 보여주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빈도	비율(%)
성별	남	90	41.5
	여	127	58.5
	합계	217	100
나이	20대	67	30.9
	30대	82	37.8
	40대	51	23.5
	50대 이상	17	7.8
	합계	217	100
직종	의료	98	45.2
	스파(피부관리)	49	22.6
	관광	70	32.2
	합계	217	100
근무기간	1년 미만	35	16.1
	1이상~3년 미만	38	17.5
	3년 이상~5년 미만	40	18.4
	5년 이상~10년 미만	51	23.5
	10년 이상	53	24.5
	합계	217	100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에 대한 총 분산은 85.380%로 분석되었다. 우선 헬스 투어리즘 상품에 대하여 설명된 분산은 31.101%,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된 분산은 28.109%, 인프라에 대하여 설명된 분산은 26.170%로 각각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헬스 투어리즘 상품 요인은 .933, 서비스 요인은 .903, 인프라 요인은 .881로 각각 높게 나타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2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태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제주지역 내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태도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추출할 요인 수는 요인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구성요소별 회전 성분행렬을 구하기 위하여 베리맥

스 회전법을 사용하였다.

<표 2>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	측정항목	공통성	적재치	고유값	분산(%)	Cronbach 's α
헬스 투어리즘 상품	상품의 우수성	.940	.876	5.939	31.101	.933
	상품의 다양성	.859	.820			
	상품의 시장성	.837	.810			
서비스	medicare수준	.869	.802	1.004	28.109	.903
	wellness수준	.859	.819			
	지원인력수준	.808	.813			
인프라	시설의 전문화	.915	.910	.741	26.170	.881
	시설의 규모	.719	.612			
	시설의 접근성	.879	.861			

KMO= .879, Chi-square= 1756.177, sig.= .000, 설명된 총분산(%)= 85.380

분석결과 KMO는 .870으로 높은 값을 보여주었고, 카이 스퀘어 값은 1235.564로 나타났다. 유의수준은 .000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요인분석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회전성분행렬을 기초로 요인별로 적재된 요인에 대하여 요인1과 요인2를 확인하였다. 요인1은 경제적 태도, 요인2는 개인적 태도로 각각 명명하였다.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공통성은 .650에서 .872 사이의 값을 나타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적재량도 .662 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도변수에 대한 설명된 총 분산은 75.462%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태도에 대하여 설명된 분산은 36.045%, 개인적 태도에 대하여 설명된 분산은 39.417%로 각각 나타났다.

태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값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경제적 태도의 신뢰도 값은 .877, 개인적 태도의 신뢰도 값은 .895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4.3 가설검증

4.3.1 가설검증1: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은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경제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광목적지 주요 속성과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경제적 태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분석되었다. 우선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과 경제적 태도 간 관계에서의 설명력은 17.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F는 15.259, 유의확률은 .000으로 각각 분석되어 $p < .001$ 수준에서 회귀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3>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	측정항목	공통성	적재치	고유값	분산(%)	Cronbach 's α
경제적 태도	관광수요유발 정도	.650	.713	.841	36.045	.877
	일자리 유발 정도	.872	.896			
	관광산업활성화 정도	.748	.813			
	소득증대 수준	.727	.662			
개인적 태도	종사자의 관심도	.657	.766	5.196	39.417	.895
	헬스투어리즘 의 성장가능성	.731	.732			
	헬스투어리즘 에 대한 호의도	.852	.858			
	헬스투어리즘 에 대한 가치평가	.800	.841			

KMO= .870, Chi-square= 1235.564, sig.= .000, 설명된 총분산(%)= 75.462

헬스 투어리즘 상품 요인, 서비스 요인, 인프라 요인은 경제적 태도와 각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헬스 투어리즘 상품 요인은 t값이 3.601, p값이 .000으로 분석되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가설 H1a는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서비스 요인은 t값이 2.289, p값이 .023으로 분석되어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b도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요인은 t값이 2.110, p값이 .036으로 분석되어 $p < .05$ 에서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가설 H1c도 채택되었다.

각 요인별 경제적 태도에 대한 영향력은 헬스 투어리즘 상품, 서비스, 인프라 순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영향력은 헬스 투어리즘 상품이 34.8%, 서비스가 21.8%, 인프라는 18.3%로 각각 분석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도 관광목적지 주요 속성과 경제적 태도를 실증한 Godfrey(1998), Kuvan & Akan(2005), Vargas-Sanchez et al.(20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과 경제적 태도 간에는 영향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4.3.2 가설검증2: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은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개인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4>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과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경제적 태도 간 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가설채택 여부
		B	표준오차	β			
	(constant)	1.846	.154		11.987	.000	
경제적 태도	헬스 투어리즘 상품	.326	.091	.348	3.601	.000***	채택
	서비스	.210	.092	.218	2.289	.023*	채택
	인프라	.177	.084	.183	2.110	.036*	채택

R²=.178, F=15.259, sig.=.000

*p<.05, ***p<.001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과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개인적 태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우선 관광목적지 선택속성과 개인적 태도 간 관계에서의 설명력은 경제적 태도 간의 설명력 17.8% 보다 높은 29.5%로 나타났다. F값은 29.543으로 충분히 높게 나타났고 유의확률도 .000으로 분석되어 p<.001 수준에서 회귀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헬스 투어리즘 상품 요인, 서비스 요인은 개인적 태도와 각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프라 요인은 개인적 태도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헬스 투어리즘 상품 요인은 t값이 4.724, p값이 .000으로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어 가설 H2a는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서비스 요인은 t값이 2.225, p값이 .027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가설 H2b도 채택되었다. 그러나 인프라 요인은 t값이 .627, p값이 .531로 나타나 $p < .05$ 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가설 H2c는 기각되었다. 이는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의 다양한 인프라는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관심도, 헬스 투어리즘 의 성장가능성, 헬스 투어리즘 에 대한 호의도, 헬스 투어리즘 에 대한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개인적 태도에 대한 영향력은 헬스 투어리즘 상품 요인이 42.1%, 서비스 요인이 19.4%로 각각 나타났다. 인프라 요인은 가설이 기각되어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는 특히 서비스 요인의 경우 임운정 등(2006)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의 주요 속성과 개인적 태도 간에는 부분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5> 관광목적지 선택속성과 헬스 투어리즘 종사자의 개인적 태도 간 관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값	p 값	가설 채택 여부
		B	표준오차	β				
	(constant)	1.192	.150			7.948	.000	
개인적 태도	헬스 투어리즘 상품	.414	.088	.421		4.724	.000***	채택
	서비스	.196	.088	.194		2.225	.027*	채택
	인프라	.051	.081	.050		.627	.531	기각

$R^2 = .295$, $F = 29.543$, $sig. = .000$

* $p < .05$, *** $p < .001$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과 제주지역 헬스 투어리즘 관련 종사자들이

태도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목적에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관련된 이론들을 고찰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 지역 내 의료·관광·스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실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헬스 투어리즘 상품, 서비스, 인프라의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은 헬스투어리즘 관련 종사자들이 경제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 속성 중 상품과 서비스는 헬스 투어리즘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인프라 속성은 개인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이론적으로 헬스 투어리즘 상품, 헬스 투어리즘 서비스와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의 인프라와 같은 관광목적지 속성이 관련종사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는 첫째, 헬스 투어리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의 태도에 미치는 주요 속성들을 감안할 때 관광목적지 수준에서 주요 속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을 시사해 준다. 둘째, 헬스 투어리즘 서비스제공자들이 개인적 태도와 경제적 태도는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속성인 헬스투어리즘 상품·서비스·인프라 중에서도 상품속성에 보다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주 헬스투어리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도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 제주형 헬스투어리즘 상품 개발이 중요성을 한번 더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셋째, 헬스투어리즘 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인적 태도와 헬스 투어리즘 목적지 주요속성 중 인프라의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이 기각된 분석결과 살펴보고 다각적인 선행연구들을 통한 제주 헬스투어리즘의 최근 연간 현황들을 살펴 볼 때 서비스제공자들의 헬스투어리스트(health tourist) 및 헬스투어리즘 관련 시설 및 사업체들과의 접촉의 기회등이 부족하여 연구분석 결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제주 헬스 투어리즘 활성화와 관련 사업체들이 강점 및 다양한 컨셉을 갖춘 시장의 형성이 필요하고 관련종사자들이 역량강화 의지와 동기(motive)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헬스투어리즘 관련종사들을 연구대상으로 일부지역에 한정된 연구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의 헬스투어리즘 종사자들로 그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후속연구를 실시하고 지역 간 비교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헬스투어리즘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를 잠재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광주일보(2014). 세계 제1의 관광 소비자 '요우커'.
- 고선희·박은숙(2012). IPA를 이용한 헬스 투어리즘 선택속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pp.438-447.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김봉기(2011). 헬스 투어리즘 자의 심리적 거리와 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과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영·이진용·라선아(2005). 소비자행동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서울.
- 김정환(2012). 동제(洞祭)속성이 참여 동기, 매력도, 장소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중의(2006). 소비자행동론. 형성출판사: 서울.
- 김진옥(2015). 자연기반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환경이 치유관광객의 주의회복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기획재정부(2014).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투자활성화대책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
- 문성중(2007). 제주특별자치도 헬스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 제주관광학회 Vol.2007 No.1 pp.7-29.
- 박시사(2005). 관광소비자행동론. 대왕사: 서울.
- 박종덕·유경미(2011). Health Tourism 고찰을 통한 현대적 Medical Tourism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서비스산업연구, 8(3), pp.1-14.
- 안정민(2014). 보건·관광계열학과 대학생들의 헬스 투어리즘 인식·태도·지식의 차이 분석. 중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수(2013). 농촌체험프로그램 서비스품질의 척도개발과 관광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성준(2006). 동북아 '헬스 투어리즘' 중심지 육성 방안 제시. 제주포커스,
- 유지윤(2011). 헬스 투어리즘 통계 생산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 56. P 19.
- 이승민(2015). 헬스 케어 산업의 창업 동향과 활성화 방안.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Vol. 169, P 4.
- 이은미·김원인·이계희(2009). 대구시 헬스 투어리즘 선택속성과 활성화 방안. 관광연구, 24(2), pp.109-125.

- 임윤정·이혜린·윤장열(2006). 영상촬영지 관광객의 선택속성과 태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1(2), pp.235-255.
- 장 심(2015) 중국인 수요자의 헬스 투어리즘 국가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현숙(2014) 헬스 투어리즘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인순·민동규·이경숙(2011). 중국인의 한국헬스 투어리즘 상품속성에 관한 연구. 동북아관광학회, 8(3), pp.259-281.
- 제주관광공사(2009). 제주형 헬스 투어리즘 정착을 위한 워크숍. P 65-66.
- 제주국제자유도시 법무 서비스 인력양성 사업단(2007).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의 발전 방향에서 제주형 헬스 투어리즘 상품의 전략적 개발 pp.38-39.
- 제주대학교 관광·레저 및 물산업 인재 양성 센터 (2010). 제주의 융복합 산업을 통한 선도 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P 55.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한라대학(2008).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 연차별 시행계획 pp.71-95
- 조문수·오상운(2015). 복합리조트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 연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제78차 (사)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pp.1111-1118.
- 최창희(2011).관광지 속성이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2014). 보건백서, pp.49-52.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2014·2013).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조사 결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2013). 외국인환자 통계 pp.43-99.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 국내 헬스 투어리즘 연관 산업 동향 및 전망, 보건산업브리프 Vol. 181, P 2.
-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2014). 제주지역 헬스 투어리즘 경쟁력 분석과 정책과제. 제주경제브리프 No.2014 -12.
- 황용철·김동훈(2011). 소비자행동. 형성출판사: 서울.
- 허문구·조현승·최윤기·박형진·정기택(2013). 헬스 투어리즘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과 정책과제. kiet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ISSUE PAPER 2013-341, P 9-12
- 부창산(2009). Health Tourism 유형별 개념정립과 개발모형 적용에 관한 연구 : QFD 적용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Godfrey, K. B.(1998). Attitudes towards 'sustainable tourism' in the UK: a view

- from local government. *Tourism Management*, 19(3), pp.213-224.
- Kuvan Y., & Akan, P.(2005). Residents' attitudes toward general and forest-related impacts of tourism: the case of Belek, Antalya. *Tourism Management*, 26, pp.691-706.
- Lawson, R. W., Williams J., Young, T., & Cossens J.(1998). A comparison of residents' attitudes towards tourism in 10 New Zealand destinations. *Tourism management*, 19(3), pp.247-256.
- Morgan N., Prichard, A., & Pride, R.(2011). *Destination Brands: Managing place reputation*. Oxford: Butterworth-Heinmann.
- Singh, S., Timothy, D. J., & Dowling, R. K.(2003). *Tourism in destination communities*. Oxon: CABI Publishing.
- Strout, K. A., & Howard E. P.(2014). Five dimensions of wellness and predictors of cognitive health protection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Journal of Holistic Nursing*, 33(1), pp.6-18.
- Vargas-Sanchez, A. Valle. P. O., & Mendes J. C.(2015). Residents' attitude and level of destination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ourism Management*, 48, pp.199-210.